

광주시, 드론산업 육성 본격 나선다

용역 수행업체 '안보경영연구원' 선정

2025년까지 추진전략·과제 발굴 등 핵심

광주시가 드론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주시는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 수행업체로 안보경영연구원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광주시 드론산업 정책

기본 목표와 방향 설정, 부문별 추진전략·과제 발굴 등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선 7기 11대 전략산업으로 드론 산업을 선정하고 국방드론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빛고를 드론펀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도 호남권 최초 드론공원 조성, 광역시 최초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 실시시험장 지정 등을 진행했으며, 북구 첨단1·2·3지구와 영산강변 일원 13.4km를 드론티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드론티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되면 비행 관련 사전규제와 전과 관련된 사전평가 면제·간소화 돼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제품 시연과 테스트를 통한 사업화가 용이해진다. 광주시는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

마련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기반 민·군 겸용 중형 카고드론 기술 개발, 드론 실증센터 구축,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광주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신규사업 발굴, 기업 유치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주도 에너지자립도시 첫 단추 꿰다 광주시는 26일 손경중 인공지능산업국장, 김광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장연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은진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위원장, 이순형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에너지전환 거버넌스를 출범했다.

전남도, 車부품사업 집중 육성

중기 발굴 고도화 기술지원

전남도는 기술력 있는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을 발굴해 자동차 부품산업 제품 고도화 기술 지원 사업'을 지원해 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267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있으며, 이중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은 98개사로 36.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업종 특성상 디자인 전문 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장비 구축에 어려움과 함께 제품 고도화와 빠른 시장 수요변화에 한계가 있어 기업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연말까지 공모를 통해 자동차부품기업 중 기술력이 있는 10인 미만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 시제품 제작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해 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한 업체는 영암에 소재한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에 주요사업과제를 신청하면 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3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비롯해 시제품 성능 평가,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홍보 브로슈어 제작, 제품 인증,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전남도는 사업화 지원과 성과 분석 등을 통한 집중 관리로 사업 참여기업이 부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전남 소재 DK엔지니어링(영암 삼호읍 소재) 등 4개 기업에서 9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기술 컨설팅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받고 있다. 이태희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장은 "국내 자동차 업체는 완성차 중심의 수직 계열화가 이뤄져 있어 신규 창업과 소규모 회사의 생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사업으로 도내 영세 자동차부품 기업은 물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 '코로나 후유증 온라인 극복센터' 운영

광주시 홈페이지에 개설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91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광주시가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을 위한 온라인센터를 운영한다. 26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91명으로 이 중 216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하지만 완치된 확진자 중 만성 피로, 두통, 당뇨, 기억력 저하, 피부병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치자 대부분은 '확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후유증조차도 주변에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없어 심리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는 원치자들을 위해 광주시 홈페이지에 '코로나19 후유증 온라인 극복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원치자 중 이상증세가 있는 사람 누구나 익명으로 상담하고, 다양한 후유증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며 치료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온라인 극복센터는 오는 28일부터 박유환 광주시의회 수석부회장이 센터장을 맡아 운영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민들이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예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광주시와 의료진이 돕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동구, 용산계룡리슈빌 금연아파트 지정

광주 동구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주민갈등을 줄이기 위해 용산계룡리슈빌 아파트를 관내 8번째 공동주택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입주한 가구 수 절반 이상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구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 및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충분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021년 2월부터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구-광주 도시공사, 커뮤니티케어 업무협약

광주 서구와 광주 도시공사가 26일 노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에 필요한 주거지원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구형 케어인실주택의 모델을 구축코자 마련됐다. 서구청 구청장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서대석 서구청장과 노경수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사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남구, 청년외락 청년강좌 수강생 모집

광주 남구는 청년들에게 배움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들과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또래 강사들이 운영하는 17개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한다. 남구는 26일 "광주에서 활동 중인 재능을 갖춘 청년들이 다방면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를 또래 청년들과 공유하기 위해 '청년이 청년에게'라는 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며 "강좌에 함께 할 청년들에게 프로그램 참가 러브콜을 보낸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준비한 강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용 영어회화 '영어는 뻔뻔하게'를 비롯해 17가지로, 청년외락에서 진행 중이다.

북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융합 로봇코딩 교육

광주 북구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AI·SW(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융합 로봇코딩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의 필요성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북구는 2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급고교, 문정여고, 광주제일고를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 북구는 인공지능 교육 협약기관인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교수 조영주)과 함께 급고교 3회, 문정여고 8회, 광주제일고 9회 등 총 2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광산구, 사장님 아카데미 수강생 선발 오디션 개최

25일 광주 광산구가 구청에서 소상공인에게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는 '2020년 사장님 아카데미 광산의 神(신)' 수강생 선발 오디션을 개최했다. 아카데미에 참여할 지역업자 총 30명을 선발하는 이번 오디션의 경쟁률은 7대 1. 광산구는 3~24일 참가자를 모집했고, 여기에 총 211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서를 냈다. 신청자도 치킨·디저트·떡 등 요식업체 대표부터 휴대폰 판매업자와 마트 책임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장의 인선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령이 엄벌에 다졌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연립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남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240,833원

1.7배

125,531원

2.1배

79,147원

2.7배

48,103원

5.3배

26,697원

← 5분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1분위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